

안전을 향한 동행 '우리는 소방관 부부'

고창소방서, 가정의 달 맞아 이벤트 마련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에서 한술밥 먹는 것도 모자라 함께 소방관 밥을 먹고 있는 소방관 부부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고창소방서에는 7쌍의 소방관 부부가 있으며, 같은 소방서 혹은 정읍, 김제 등 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김봉춘 서장이 각종 재난에 대한 업무와 공동육아, 가사를 병행하는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행정, 화재, 구급, 구조 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부소방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서로 힘든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어 힘이 될 때가 많다는 부부소방관, 이들은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도 교대로 돌아가는 근무 때문에 부부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한다는 매력 때문에 현장을 누비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훈-유지현 부부는 남편은 화재조사 분야의 베테랑으로 아내는 건축허가,풍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남편은 소방시설관리사로 아내와 건축현장을 살펴기도 하는 등 업그레이드 된 진정한 소방관의 모습이다.



고창소방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에서 한술밥 먹는 것도 모자라 함께 소방관 밥을 먹고 있는 소방관 부부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조태경-장혜진 부부는 남편은 특전사 출신의 최강 구조대원으로 아내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구급현장을 누비고 있으며 현재는 구조대 팀장과 구급행정업무하며 구조구급대원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부부소방관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으며, 이에 부부소방공무원은 직업이 같아 서로 큰 힘이 되고 좋은 게 많으며,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통해 멋진 오렌지 빛 재복을 만들 것을 다지는 자리가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양돈농가 서기원씨, 정읍시민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탁

잠곡면 양돈농가인 보민영 농조합 서기원 대표가 지난 8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서 대표는 "시에서 지원받은 축사시설자금 활용으로 많은 소득을 올렸다"며 "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학재단 이사장인 김생기 시장은 "구제역 여파로 양돈농가도 힘든 상황인데 지역인재를 키우는데 큰 정성을 더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뜻을 기려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송산효도마을, 어버이날 행사 개최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송산효도마을(원장 하정만)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송산효도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 인근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안군 최장수 어르신인 전소전녀(106, 여)씨에게 대표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김종규 부안군수와 오세웅 부안군의회 의장이 어르신들께 큰절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송산효도마을 직원들과 함께 어머니 마음 노래를 함께 부르며 부모님의 마음을 절실히 느껴보기도 했다.

2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에서는, 8팀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등 수상을 하기도 하였고, 행사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장들과 인근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송산효도마을 어버이날 행사는 12년째 꾸준히 진행되어오고 있다.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만히 행사가 진행되어 이번 어버이날 행사는 더욱 훈훈하고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생활 속 법률상식 특별 강좌 운영

전주시립도서관이 교통사고와 민사 분쟁, 부동산, 상속 등 생활 속 법률상식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특별한 강좌를 운영한다.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은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생활 속 법률 강연'을 주제로 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시민 로스쿨은 법무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주준법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로스쿨 강연에는 박재홍 변호사 등 4명의 현직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돼 매주 △교통사고 아니야 아니~퇴모(10일) △개인 간 민사 분쟁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17일)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24일) △빚도 상속이 된다(31일)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어렵게 느껴지던 생활법률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맞춤형 전문강사 파견

전주시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우울증 해소와 치매예방을 위해 맞춤형 전문강사를 파견키로 했다.

시는 올해 15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소인원 29명 이하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30곳에 전문강사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 모집공고를 통해 웃음치료 3명, 미술치료 2명, 건강체조 1명, 노인놀이치료 1명 등 총 7명의 강사를 모집할 상태로, 이들은 각 시설별로 월 2회 찾아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웃음치료, 미술치료, 시니어건강체조, 노인놀이치료 등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문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건강관리를 통해 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정읍경찰, 등산로 범죄신고위치표지판 일제점검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김중화) 농소파출소(소장 안성관)에서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물티끌 범죄' 등 예방을 위해 관내 등산로 등 취약개소에 대해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병로 산책길, 편백 숲길, 공중화장실 등 관내 취약개소에 대해 가로등 조도 및 신규 필요 장소 등을 점검·과약하고 현재 설치·운영 중인 범죄신고위치표지판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등산로 입구 목 지점 거점근무, 가시적 순찰활동 및 등산객 상대로 자력방범의식 확산·고취를 위한 범죄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성관 농소파출소장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대 여성 혼자 산책이나 운동하는 것은 위험하니 자제를 바라며, 등산로 안전 확보를 위해 등산로 주변 목 근무 및 가시적 순찰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주)전주매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종량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33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6	진안지사 433-3064
호지지사 010-8845-9835	팔백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86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경찰, 홀로 거주하는 탈북민에 사랑의 카네이션 전달

정읍경찰서(서장 김중화) 보안계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거주하는 탈북민(60세 이상) 김모씨 등 3명에게 사랑의 카네이션과 톨케익을 전달했다.

어버이날이지만 찾아 올 자녀도 찾아볼 부모도 없이 쓸쓸히 혼자 지내는 탈북민들을 위해 작지만 정성을 담은 카네이션과 톨케익을 준비하여 탈북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등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탈북민 이씨는 자녀에게 못 받는 카네이션을 신변보호관이 챙겨주고, 정읍지역에 살면서 외로울 때마다 경찰이 항상 함께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북한에서의 경찰은 감시하고 단속하는 나쁜 이미지라면, 한국에서의 경찰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니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중화 경찰서장은 탈북민이 정읍지역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이 참 좋다!
순창 귀농은 더 좋다!

귀농·귀촌 최적지 순창

순창군 귀농·귀촌 상담전화 063)650-5172~5174
순창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gosunchang.com

순창군 SUNCHANG